

생활

청소년 자살 미리 막을 수 있다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 하기 보단 죽음으로 피해 버리는 심각한 젊은 세대의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9

「건전 가정실천강령」 선포

12개 여성단체 참가... 이광규교수 초안작성 39

선천성기형아 늘고있다

조기검사 중요... 특수 임상시설 갖추어야 40

건강정보

아침식사 거르면 다이어트 '역효과'

굶지 않고 먹으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건강비결. 44

주말요리 (관련기사 44면)

단백질 풍부한 「닭고기 조리법」

다른 고기에 비해 칼로리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요리. 냄새 없애 새 맛을 돋우는 볶음·구이 등 조리법.

패션뉴스

캘빈 클라인이 디자인한 겨울 멋내기 44

대입정보 (관련기사 40면)

과목별 5년간 출제 경향 분석

○스태미나24시 39 ○오피니언 39

FASHION

조형예술로
 승화된 옷
 '옷을 입는다'는 의미보



선거 심장부 뛰어든 재야 두 여성 '여권운동' 박영숙씨 '시국춤' 이애주교수

8명의 후보들이 경합중인 대통령선거전이 D데이 10여일을 앞두고 비등점을 향해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 재야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오던 여성들이 적극적인 양상으로 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오랜기간 투신해온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이태영박

사가 평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여성단체연합 제1부회장인 박영숙씨가 평민당 부총재로 각각 등장했으며, 시국춤의 이애주교수가 백기완씨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는데 앞장서, 현재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 단독인터뷰

또한 노총 전여성국장이었던 김근화씨가 신민주공화당 근로여성국장으로 참여하는 등 이번 선거를 계기로 많은 여성인사들이 정계의 '뉴페이스'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 앞을 다투어 발표되고 있는 각당 여성

정책에서도 잘 보여지듯 이번 선거우위 유권자로서 여성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의 리더들이 보여줄 영향력에 대해 각 후보들이 거는 기대 또한 크다. D데이 10여일전, 평민당 부총재 박영숙씨와 백기완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 이애주씨의 숨겨진 2시대를 뒤쫓아 본다. (관련기사 38면)

문화예술



이색전시회 「정치와 미술전」

80년대 사회 변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치와 미술전」이 「서울공동체」 기획으로 열려 화제 43

작업실에서

「향」 시리즈 계속...

화가 김영덕 70년대 이후 잃어버린 자신의 주제를 강렬하게 토해낸 화가 김영덕이 정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43

「거리박물관」

장안평

고미술상가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과 관광단지로 한 몫을 하고 있는 고미술상가를 가본다 41

「뮤지컬 폭풍이 불어온다」

「우리들의 사랑」, 「코러스라인」 등 12편이 무대에 오른다 41

금주의 예술인

대한민국 문학상 시 우수상 수상

노항림씨 "견고한 삶의 자세를 노래" 41

대한민국 문학상 평론 신인상 수상

홍정선씨 "문학-현실관계 밝히겠다" 41

알기 쉽게 생활영어 · 일어

앨범 불량품 많다

시중 11종 모두 표시보다 치수·장수 적어

조브크러 여하히 조사 표시한 제품은 단 1개 제품도 없었다.

을 받고있는 AIDS감사비용이 50%이하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연탄가스누출감지센서 개발

연탄가스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가스센서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민주화의 물꼬」 트겠다

정인 남편 안병무씨(66)의 영향력이 컸다.

인권운동가로 오랜 세월을 활동해온 안씨가 1973년 평민당국선연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수감자의 가족으로써 함께 투쟁의 길에 들어선 것.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 동생상연의 아픔을 공유한 김대중·이회호 부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평양 출생으로 이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외국유학중 5.16을 맞아 귀국한 이래 줄곧 외길을 걸어온 그녀는 서른 일곱살에 결혼해 늦게 본 외아들이 있다.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정계로 들어왔는데 특별한 계기나 명분이

서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이 우선되는 정당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내가 정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좀더 확실하고 큰 숙제를 풀기위해 나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모든 여성은 정치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난 16년동안 저당잡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역사의식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겁니다.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회호여사와의 친분이 많이 작용했습니까.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분



◇여성단체연합회 부회장직을 떠나 평민당 부총재에 취임함으로써, 재야 여성세력을 규합할 인물로 당내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박영숙씨.

있었습니까.

▲내뜻이라기보다는 여성계의 중론에 떠밀린 겁니다. 당시 제의를 받고 우리 가족은 함께 무척 고심했습니다. 남편은 갈을 일을 해 두는 재야운동은 존경과 우대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계는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신중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성 차별 극복의지로 제

들의 결혼식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외 기대치가 있을 듯인데, 이것에 상응할만한 득표전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공개할 만한 것은 없지만 저만의 투표전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이 비

정계진출 재야 두여성 인터뷰

결정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입당할 때도 나만의 뜻이 아니었으니 탈당 역시 대세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성 부총재 자리는 누가 지키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단 발을 내딛었으니 능력껏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만일 소속한 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고 싶습니까.

▲전 기존정당의 구조나 가치기준이 옳다고 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권력구조는 권력을 권자들의 자기보호로 일관해왔는데, 우리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인권운동을 하던 시각으로 보다 국민의 편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결의기구에 속하든 그 취지에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데 앞장설 겁니다.

—여언(女聯) 부회장등 여러자리에서 일해오셨는데 특정 정당 부총재직과 경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리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제 양식상 입당하면서 모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쓰다보니 모두 일곱장이 되더군요.

—이번 선거를 통해 재야쪽 여성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여성계를 규합시킬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일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 두고두고 가슴아픈 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군정을 종식시킬 인물로 단일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사실을, 후보들의 양식을 믿고 싶습니다.

「민중대표 대통령후보 전국추대위」의 위원장자격으로 백기완후보의 등록을 대행한 이애주교수(40)는 이미 몇차례에 걸친 '시국춤'으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

백기완후보 선거운동본부 상임위원 이애주교수

“인간다운 삶을 또 한판의 춤”

출판의 춤꾼이던, 그러나 여느 춤꾼과는 좀다른 색깔을 띠어왔던 그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으로써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 체육과 조교수 이애주를 강단에서 군중속으로 끌어낸 첫 계기는 연우무대에서 공연한 한판춤 「바람맞이」, 70분간 독무로 일주일간이나 계속된 공연이었다.

이후 그녀는 6.25평화대행진 서울대출정식에서의 한판 춤판, 이현열군 장례식에서 보여준 한판이춤, 홍계동성당 석방민주인사환영회의 야외출판 등 강단이나 공연장이 아닌 이시대의 현장, 민중들 속에서 춤을 추 '시국춤' '사회춤'... 등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시비와 화제를 뿌렸었다.

사실 그녀가 민중문화운동에 관여한 것에는 20년 가까운 역사가 있다. 서울사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문리대 국문과에 편입, 문리대 '탈반' 창단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중문화예술 보급에 앞장서온 것. 지금까지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임진택 이상우 장만철 김영동 김민기 등도 그 시절부터의 동

모시면서 그의 시를 춤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해방의 노래, 통일노래」란 책의 출간기념회를 한 판극으로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백기완의 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백기완대통령후보추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선거가 가까와오면서

중의 대변자는 선생님께서 없다는 생각에 중책을 맡게된 것입니다.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춤마련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주세력이 함께 뭉쳐야만 군정이 종식되고, 민중이 주체가 된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



◇자신의 정치참여는 '인간다운 삶을 정취하기 위한 또 한판의 춤'이라고 말하는 이애주교수.

학생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백선생님을 독자후보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돼, 지난 11일 명동성당에서 대학생 근로자 재야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로 후보추대를 수락할 때까지 설득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추대위원회를 통해 권인숙양 이철의원 구속자가족대표 학생 노동자대표들이 선생님의 추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등록할 수 있었던 것도 기탁금모금이 어려웠던 때문입니다. 공식 후보등록이 된 지금도 많은사람들로부터 계속 선거자금에 답지하고 있습니다.

—백기완의 선거운동본부 상임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기존정당이 사용하는 유세방법을 택하기에는 자금사정등 어려움이 큼니다. 우리대로의 민중적인 방법론을 택해야지요. 앞으로 선거 유세판을 한판극으로 생각, 필요하다면 춤도 출 각오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정치활동을 할 생각입니까.

▲나의 정치참여는 인간다운 삶을 정취하기 위한 또한판의 춤입니다. 예술적 실천의 장과 사회적 실천의 장이 만난 장의 본보기가 바로 이번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따라서 춤과 정치를 구분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춤'으로서 현실 참여의 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요.

▲선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가치관이며, 이것을 깨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춤은 춤으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춤이란 바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춤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예술적 실천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실천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춤꾼이 춤을 통해서 세계를 생각한다면 바로 역사속의 한 점으로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립대학교수라는 신분으로 정치활동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 앞에도 당당히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교수는 아니지요. 학생들이 호응해주기 때문에 그 외적인 어려움은 이겨내고 있

“여성의 ‘저당잡힌 권리’ 찾으려면 역사의식 갖고 선거를”

며 그간 KBS시청료기부운동(1985~) 권양석방운동(1986~1987) 최루탄추방운동(1987)을 이끌어온 그녀는 그밖에 국민운동본부, 교회여성단체 등에서도 구심점으로 움직여 왔다.

초기에는 여성해방운동에 주력하던 그가 인권운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데는 한 한국선학연구소 소

의한 여성부총재직을 사임하는 건 마치 뒤로 물러서는 것일 수도 있다며 여성계 중진들이 적극 추천했고 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인 듯하는데...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레

치지 못하는 중의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당에서도 당내사정에 어두운 제 입장을 감안해 마포쪽에 사무실을 따로 내놓만큼 배려하고 있는데, 반드시 민주화의 전기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입당이 정치참여라는 의미보다는 김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녀는 재야로 남아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앞장서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이번 선거의 관건이 바로 공명선거에 달려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새로운 새부대에 당했다”는 의지가 정계에 들어선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임희경기자)

료이다.

그후 78년 도미, 4년 가까운 재지생활 끝에 82년 서울대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그녀는 춤과 ‘신’을 창단하고 민중의 삶속에 뿌리내린 춤을 본격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즈음 만나게된 사람이 바로 백기완후보. 이교수는 그때부터 백기완을 ‘민중문화의 스승’으로

그런데 그동안 시국춤으로 이름이 좀 났던지(웃음) 제보고 위원장직을 맡으라는 거였어요. 춤꾼이 나서는 것은 마땅치않다며 한사코 사양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평소 사상면이나 예술면으로 깊이 존경해오던 분이었고, 민

노동시인 박노해씨가 추대사를 보내는 등 많은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요.

—기탁금 1억원의 출처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분분한데...

▲그러한 말들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기탁금 1억원은 모금을 통해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마감직전에사

입니다.

추대위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를 한판의 곳으로 생각한다는 이교수. 민중세력이 주체가 되어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행동하는 춤꾼으로서 그녀는 춤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김경화기자)